



조선이공대, 제59회 학위수여식 성료

조선이공대학교는 지난 14일 학교 2호관 대강당에서 2023학년도 학위수여식을 열고 전문학사 1081명, 학사 43명을 포함한 총 112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졸업생과 학부모 등 가족, 교수와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사보고와 총장 회고사, 총동창회장 축사, 학위증서 수여, 상장 수여, 교가제창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학업 최우수상을 받은 전자과 김도현 학생을 비롯해 학업우수상, 공로상, 특별 공로상, JOY ACE 인재 인증제 등 학교장상과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이사장상을 받은 프랜차이즈창업경영과 송태문 학생을 비롯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표창, 한국방송통신진흥원장상, 조선이공대학교 총동창회장상, 광주은행장상, 공간정보산업 미래 인재상,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표창장 등 특별상을 받는 수상자들이 각각 무대에 올라 그간의 노력과 성취를 인정받으며 학위증을 받았다. 최동환 기자



동신대, 캄보디아 캄포트주 고교연합과 협약

동신대학교는 최근 캄보디아 캄포트교육청에서 캄포트주 고등학교 연합과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전파'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

이날 협약에는 송경용 대외협력부총장을 대표로 한 동신대 방문단과 H.E. Tep Yuty 캄보디아 상원의원, H.E. Ken Santha 국회 사무총장, So Phearith 캄포트 주 교육감 등 캄보디아 고위층 간부들이 참석했다.

동신대는 이번 협약에 따라 향후 캄포트주 소재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대학 사회봉사단을 파견해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과 함께 한국문화를 알리는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동신대 방문단은 협약 체결 후 캄포트 주 소재 3개 고등학교와 캄 주 소재 4개 고등학교의 초청을 받아 외국인 유학생 입학설명회도 개최했다. 최동환 기자



광주시선관위, '새마을 뽀꼬, 새마을 담고' 캠페인

광주시선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북구 안보회관에서 새마을 뽀꼬, 새마을 담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

이번 캠페인은 오는 3월5일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마련됐다.

서방새마을금고 회원 300여명은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포춘쿠키 뽀꼬와 공명선거 다짐 이벤트를 진행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지역 금융의 민주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송하철 국립목포대 총장, 국가중심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장 취임

국립목포대학교는 송하철(사진) 총장이 국가중심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제26대 회장에 선임돼 향후 1년간 활동을 하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중심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국립목포대를 포함해 국립강릉원주대, 국립공주대, 국립군산대, 국립금오공과대, 국립목포해양대, 국립부경대, 국립순천대, 국립안동대, 국립창원대, 국립한국교통대, 국립한국해양대, 국립한밭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한경국립대, 한국교원



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체육대 등 19개교 국공립대학교 총장으로 구성된 전국단위 협의회로 국가 교육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국가중심 국공립대학교 총장님들과 더불어 급변하는 대학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국가 고등교육의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광주 북부소방, 구급대원 호신술 교육 실시

광주 북부소방은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잇따름에 따라 대원들의 폭행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7일부터 오는 19일까지 호신술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

북부소방 소속 구급대원 73명이 참여하는 이번 교육에서는 김종성 바른체육관 관장 등 3명의 강사가 구급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폭행상황에 대비해 거리유지 및 방어기술을 익히는 데 초점을 맞춘다.

북부소방은 앞으로도 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채덕현 북부소방 119재난대응과장은 "구급대원들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대원들의 신체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구급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전남도농기원, 전남농업마이스터대 입학식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행란)은 지난 14일 농업교육관에서 송경환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 학장과 제9기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 입학생 등 3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을 개최했다. (사진)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은 지난 2009년부터 전남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 특화품목 중심으로 영농현장에서 실습 위주의 맞춤형 기술과 경영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320명의 입학생을 모집했다.

입학식은 순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남도농업기술원 캠퍼스(목포대학교·전남농업기술원·한국은실작물연구소)에서 3개 권역으로 나눠 각각 개최됐다.

이번 제9기 입학생은 2월부터 2년간 순천대학교, 전남대학교, 목포대학교, 전남도농업기술원, 한국은실작물연구소의 5개 캠퍼스에서 16개 전공 과정 교육을 받게 된다. 오지현 기자



전남생활개선회, 15·16대 회장단 이·취임식

한국생활개선회 전남도연합회는 최근 전남농업기술원에서 회원 및 임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16대 회장단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

제16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경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농업·농촌 여성 리더로서의 역량 강화 △지역사회 농촌청소년 및 영농 후계세대 육성 지도 △여성농업인 권익 향상 등 3가지 중점 추진사항을 제시하며, 생활개선회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농촌에서 모두가 살고 싶은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 농업, 환경, 문화 보호는 물론, 농촌 사회의 활력을 주도하는 지역 여성 리더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16대 임원은 부회장 이기연(해남), 감사 이옥금(나주), 김금남(담양)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2개 시군연합회와 협력해 향후 2년간 전남도 생활개선회를 이끌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산인공 전남서부지사, '인력양성' 약정체결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는 최근 2025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목포대학교, 한국폴리텍 전남캠퍼스 등 2개 기관과 약정체결식을 가졌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사진)

이번 체결식에는 2025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사업성과 달성을 위한 주제적 역할 수행과 책임에 대한 사항이 협의됐다.

2개 공동훈련센터는 약정체결로 올해 총 44개 과정의 재직자와 채용예정자 1020명을 대상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목포대학교는 '조선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특수융합' 등 25개 과정 500명을 대상으로, 한국폴리텍대학 전남캠퍼스는 '전기자동차 진단실무' 등 19개 과정 5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박소영 기자

원빈 눈물·한소희 한달음... 김새론 추모 발길

배우 김새론(25·사진) 빈소에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배우 원빈(47)은 17일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빈소가 마련된 직후 조문했으며, 침통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연신 눈물을 흘렸으며, 30분 가량 머뭇다 장례식장을 나섰다. 소속사 이든나인은 원빈·이나영(45) 부부 이름으로 근조화환도 보냈다. 원빈은 영화 '아저씨'(감독 이정범·2010) 이후 15년째 연기 활동을 쉬고 있지만, 고인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두 사람은 아저씨에서 호흡을 맞췄다. 범죄조직에게 납치당한 옆집 꼬마 '소미'(김새론)를 구하기 위해 세상 밖으로 나온 전직 특수요원 '대식'(원빈) 이야기다. 고인은 이 영화를 통해 충무로 기대주로 떠올랐다.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에도 불구하고, 누적관객수 628만명을 넘으며 흥행했다.

절친한 배우 한소희, 김보라, 남매 듀오 '악뮤'(이찬혁·이수현) 등도 조문했다. 한소희는 1시간 넘게 빈소를 떠나지 못했고, 김보라가 보낸 근조화환 속 '또 만나 그뻐 잔소리 줄일게'라는 문구가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 외 아이유, 마동석, 공명, 밴드 'FT아일랜드' 등이 조화로 애도했다. 배우 김옥빈과 서예지, MC 박솔기 등은 SNS를 통해 추모했다.

김새론은 전남 서울 성동구 자택에



서 숨진 채 발견됐다. 친구가 오후 5시께 집에 방문했다가 경찰에 신고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도 없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변사사건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발인은 19일 오전 6시20분이며, 장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유족 뜻에 따라 추후 장례 일정은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김새론은 아역배우 출신이다. 2001년 잡지 '양광' 모델로 데뷔했다. 2009년 영화 '여행자'에 경성콜 1000:1을 뚫고 캐스팅, 연기를 시작했다. '이웃사람'(2012) '맨홀'(2014) '눈길'(2017) '동네사람들'(2018), 드라마 '여왕의 교실'(2013) '마녀보감'(2016) '레버리지: 사기조작단'(2019) '우수무당 가두심'(2021) 등에도 출연했다. 2022년 5월18일 서울 청담동 부근에서 음주운전해 변압기 등을 들이받았고, 다음 해 4월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8월 아이이브라더스 '비터 스위트' 뮤직비디오로 복귀했다. 11월 영화 '기타맨'(감독 신재호) 출연 소식을 전했으며, 올 상반기 개봉을 앞두고 유작이 됐다.

뉴시스